

제 305호 · 2015년 5월 7일

미래전략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

총괄 이성우 실장, 감수 길광수 감리위원

KMI

국제물류위클리

K O R E A M A R I T I M E I N S T I T U T E

| CONTENTS |

물류정책·사업동향

1. 세계 최대 갑문 등극 예정인 엔트워프항 Deurganck 갑문, 물 채우는 작업 시작
2. 중국철도수출입공사, Kerry Logistics와 네트워크 통합을 위한 협정 체결
3. 계약물류시장, 2014년에 2천억 달러로 성장
4. SISI, 2015년 컨테이너 물동량 회복세 예상

물류시장동향

1. 터키, 쿤 항만 지분 매각 예정
2. PIL · 한진해운 · K라인 3사, 신규 intra-Asia 서비스 개시

공지사항

1. 중소중견 물류기업 해외진출 컨설팅 및 시장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



한국해양수산개발원
KOREA MARITIME INSTITUTE

물류정책 · 사업동향

□ 세계 최대 갑문 등극 예정인 앤트워프항 Deurganck 갑문, 물 채우는 작업 시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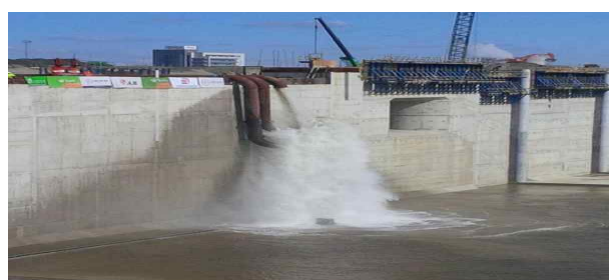
- 2016년 운영 예정이고 세계에서 가장 큰 갑문이 될 앤트워프 항의 Deurganck 갑문에 150만 입방 미터(m³)의 물이 채워질 예정임
 - Deurganck 갑문은 앤트워프 항에 위치할 두 번째 갑문으로 Scheldt 강과 Waasland 운하사이를 연결함
 - Scheldt 강이 파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새로운 갑문은 물의 높이를 최대로 유지함으로써 갑문의 접근성을 보장할 것임
 - 갑문을 물로 채우는 작업은 4월 27일 월요일 시작되어 7일 정도 걸릴 예정임
- 현재 Deurganck 갑문에 인접해있는 Kallo 갑문은 이미 최대 용량에 도달했는데, 새로운 갑문 도입으로 기존 보다 큰 선박도 처리가 가능하게 됨
 - 앤트워프항 북쪽에 위치한 Berendrecht 갑문과 같이 Deurganck 갑문은 길이가 500m이고 폭은 58m이지만 수심이 17.8m로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Berendrecht 갑문보다 4m 더 깊음
 - Deurganck 갑문은 4개의 롤링 게이트를 가지고 있는데, 중국 ZPMC에서 제작·공급했음
- Deurganck 갑문 건설비용은 3억8천2백만 유로이고 Flemish 지역과 앤트워프 항만당국이 공동으로 투자함
 - 앤트워프항에 따르면 Waasland항의 화물량은 2011년 약 1,600만 톤에서 2020년 2,500백만 톤으로 56%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

<Deurganck 갑문>



자료 : gCaptain.com

<Deurganck 갑문 물 채우는 장면>



자료 : gCaptain.com

자료 : gCaptain.com, 2015.4.27 / www.porttechnology.org, 2015.4.28

이언경 전문연구원 (☎ 051-797-4682, eklee@kmi.re.kr)

□ 중국철도수출입공사, Kerry Logistics와 네트워크 통합을 위한 협정 체결

- 중국의 국영기업인 중국철도수출입공사(中铁进出口公司, China Railway Import and Export Company)와 Kerry Logistics Network Limited의 중국 자회사인 Kerry Logistics (China) Investment Limited가 각 사의 네트워크 통합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전략적협력협정(Strategic Cooperation Agreement)을 체결하였음
 - 지난 4월 3일에 베이징에서 체결된 협정은 중국철도수출입공사의 중국 및 해외의 사업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하고, Kerry Logistics의 강력한 동남아 네트워크와 물류 서비스 전문기술을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함
- 이번 협정은 중국의 저우추취(走出去, going out)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, 중국의 대형 기업들은 일대일로(一帶一路, One Belt One Road)가 가져다주는 신성장 기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- 이 협정으로 중국철도수출입공사와 Kerry Logistics는 각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, 일대일로의 실현을 위해 양사가 장기 관점에서 긴밀히 협력할 것임을 밝혔음
- 중국철도공사는 1988년 당시 중국의 철도부 및 대외무역부의 승인에 따라 설립된 국영기업으로, 철도장비 수출입, 해외 철도 프로젝트 및 기술협력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
 - 중국철도수출입공사는 미국, 독일 및 프랑스로부터의 철도부품 수입 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철도 운영 및 유지보수 프로젝트를 포함한 다수의 국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음

자료 : www.criec.cn, 2015.4.6 / www.kerrylogistics.com, 2015.4.20.

송주미 전문연구원 (☎ 02-2105-2872, jmsong@kmi.re.kr)

□ 계약물류시장, 2014년에 2천억 달러로 성장

- Ti(Transport Intelligence)가 최근 발간한 '2015 글로벌 계약 물류(Global Contract Logistics)'에 따르면 2014년 전세계 계약물류시장은 전년대비 5.4% 성장한 2천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됨
 - 2014년의 물가와 환율을 2013년 수준(불변가격)이라고 가정했을 때, 계약물류시장은 4.4%까지 성장한 것으로 분석됨
 - 경상가격 기준으로 5.4%에 이르는 2014년 계약물류시장의 성장은 2013년의 2.8% 성장률과 비교했을 때 괄목할만한 수준임
 - 이러한 성장은 유럽 서부지역 국가들과 미국, 그리고 중국 물류시장의 실적 증가에 기인한 것이며, 글로벌 계약물류시장에서 이들 시장의 비율은 약 65%로 절반을 넘고 있음
- 전체 계약물류시장의 성장은 유럽 경제가 성장하는데 따른 영향이 크며, 이는 전반적으로 계약물류시장이 성장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었음
 - 미국의 계약물류시장 역시 2014년도에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였으며, 중국은 글로벌 계약물류시장의 핵심 국가로서 연간 17.7%의 성장세를 보여 시장규모가 2,120만 달러에 이르고 있음
-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계약물류시장은 연평균 6.8%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
 - 주요 시장의 기초적인 경제여건 향상으로 계약물류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, 전자상거래와 같이 물류의 중요성과 역할의 증대는 긍정적인 추세가 이어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음
 - 또한 물류산업의 자동화가 향후 시장 성장에 큰 역할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데, 드론과 자율주행 차량, 자동화 창고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음
 - 글로벌 계약물류시장의 성장은 상당 부분이 유럽과 미국 경제에 달려있는데, 최근 중국경제의 더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시장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
 - 그밖에도 인도,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, 멕시코, 사우디아라비아, 카타르, 콜롬비아, 나이지리아 등에서의 계약물류시장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

자료 : www.porttechnology.org, 2015.5.1 / transportintelligence.com, 2015.5.1.

이홍원 연구원 (☎ 051-797-4783, hongwon@kmi.re.kr)

□ SISI, 2015년 컨테이너 물동량 회복세 예상

-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, 이는 세계 경제의 구조적인 측면과 지역 변화에 따른 결과라고 중국 해운연구 기관인 상하이국제해운연구센터(Shanghai International Shipping Institute, SISI)가 전망함
- 상하이국제해운연구센터의 글로벌 항만개발보고서(Global Port Development Report, 2014)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대비 약 4% 가량 증가했으며, 2015년에는 약 5%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
 - 이러한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안정적인 성장세는 세계 경제 안정화와 무역 환경 개선으로 인한 결과라고 언급했음
- 지역적인 측면에서, 미국내 재산업화(reindustrialization)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미국내 경제활성화를 비롯해 전 세계 물동량의 급속한 증가를 예측했으나, 미국내 에너지 산업의 구조 개선으로 에너지 수출이 증가하면서 미국내 전체 상품 교역 중 수입 물동량은 감소했다고 분석했음
- 중국의 경우 경기 침체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2억 TEU 이상을 처리하고 있음
 - 상하이국제해운연구센터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지만, 최근의 중국 내 경기침체는 교역량 감소, 환율 변동 등으로 이어져 분야별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음
- Ningbo-Zhoushan 항만의 경우 2014년 약 8천7백만톤을 처리해 전년대비 약 7.9% 증가함으로써 중국내 항만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
- 그 동안의 상하이국제해운연구센터 연구 결과에 따르면, 중국의 국제 해상운송 물동량은 2030년까지 총 62억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17%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
 - 이 가운데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은 2억 TEU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

자료 : www.portfinanceinternational.com, 2015.4.15.

손보라 연구원 (☎ 051-797-4781, bora62@kmi.re.kr)

물류시장동향

□ 터키, 쿤 항만 지분 매각 예정

- 터키 보스포루스(Bosphorous) 해협에 위치한 쿤(Kum) 항만 지분 36%가 매각될 예정임
 - 쿤항만은 지난 6년간 연평균 25%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
 - 또한 연간 처리물동량은 170만 TEU이며 터키 전체 물동량의 13%를 차지함
 - 이번 매각은 쿤 항만 내 시스템 및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투자 준비 계획의 일환임
 - 매각된 지분은 Turkac No1. SARL, Fina Holding, Fiba Group이 보유하고 있으며, Fina Holding의 경우 경영권은 유지하면서 지분을 매각하는 것임

자료 : www.portfinanceinternational.com 2015.4.23.

김은미 연구원 (☎ 051-797-4778, usea1004@kmi.re.kr)

□ PIL·한진해운·K라인 3사, 신규 intra-Asia 서비스 개시

- 싱가포르 기반의 Pacific International Lines(PIL)사는 한진해운 및 K-Line사와의 제휴를 통해 아시아 역내의 중국, 태국 및 베트남 등을 직접 연결하는 신규 서비스인 China Straits Express(CSE)를 개시한다고 밝힘
 - 주 1회 운항되는 CSE 서비스를 위해 2,500 TEU급의 선박 4척이 투입됨
 - 본 서비스는 4월 20일 칭다오(Qingdao)항에서 첫 출항하여 상하이항, 닝보항, 람차방(Laem Chabang)항, 싱가포르항, 클랑(Klang)항, 람차방항, 호치민(Ho Chi Minh city)항과 샤먼(Xiamen) 항을 거쳐 다시 칭다오항으로 회항할 예정임
- 한진해운은 본 서비스가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아시아 역내의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고객사들의 네트워크 및 경쟁력을 강화시켜줄 것이라고 전망함

자료 : www.seatrade-global.com, 2015.4.8.

고재성 연구원 (☎ 051-797-4776, jsko@kmi.re.kr)

< 중소·중견 물류기업 해외진출 컨설팅 및 시장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 >

□ 한국해양수산개발원(KMI)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서는 **중소·중견 물류기업을 대상으로** 다음과 같이 **해외진출 상시 컨설팅**과 **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**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,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□ 대상기업

- 「물류정책기본법」에 의한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중소·중견기업
 - 주된 사무소가 해외에 소재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% 이상인 기업 포함
 - ※ 중소·중견기업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및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적용 대상기업

□ 대상사업

- 해외 물류시설(물류단지·센터·창고·항만·복합물류 터미널 등)의 개발·투자·운영 사업
- 해외 화물운송 및 물류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한 법인·지사·사무소 설립 사업
- 상기 관련 M&A 및 기타 해외 물류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

□ 지원내용

1.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

- 진출희망 지역 또는 추진하려는 해외 물류사업과 관련한 현지 시장정보 및 진출·투자 여건 등 기초정보에 대해 단기 컨설팅 지원
 - 현지 경제·무역·인프라·물동량 현황, 투자 관련 법·제도 등에 관해 기업이 문의 시, KMI가 보유하거나 입수 가능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 해당 문의사항 관련 정보 제공
- 컨설팅 결과물은 문서 형태로 제공

2.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

- 해외 물류사업과 관련한 기업의 의사결정을 위해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, 현지 공동조사(KMI 연구진과 물류기업 임직원이 동반)를 수반한 중기 컨설팅 지원
 - 필요시 해외투자 유관기관 및 현지 유관기업 관계자와의 상담 주선
 - ※ 현지 공동조사에 수반되는 출장비 등은 KMI와 해당기업이 각자 부담
- 조사 종료 후 공동조사 보고서 제공

□ 지원사업별 신청방법

1.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

- 신청기간 : 연중 상시 신청
- 신청방법 : '해외진출 상시 컨설팅 지원 신청서'(별첨 1)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신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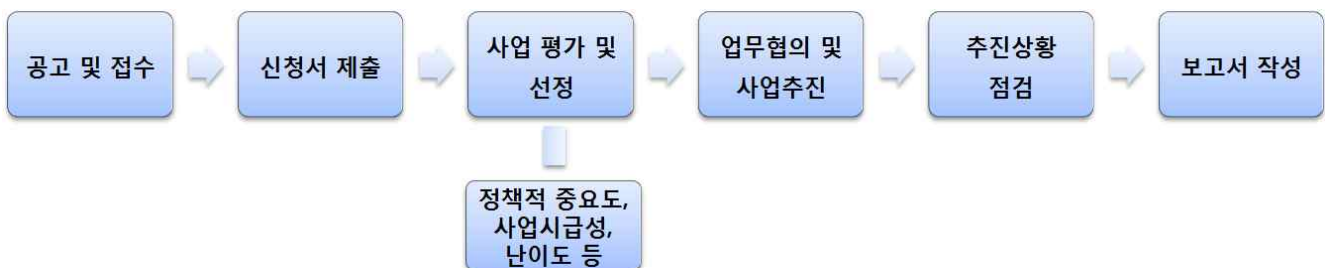
2.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

- 신청기간 : 연중 상시 신청
- 신청방법 : '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지원 신청서'(별첨 2)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신청
- ※ 담당자 : 김은우 전문연구원(hisgrace@kmi.re.kr), 손보라 연구원(bora62@kmi.re.kr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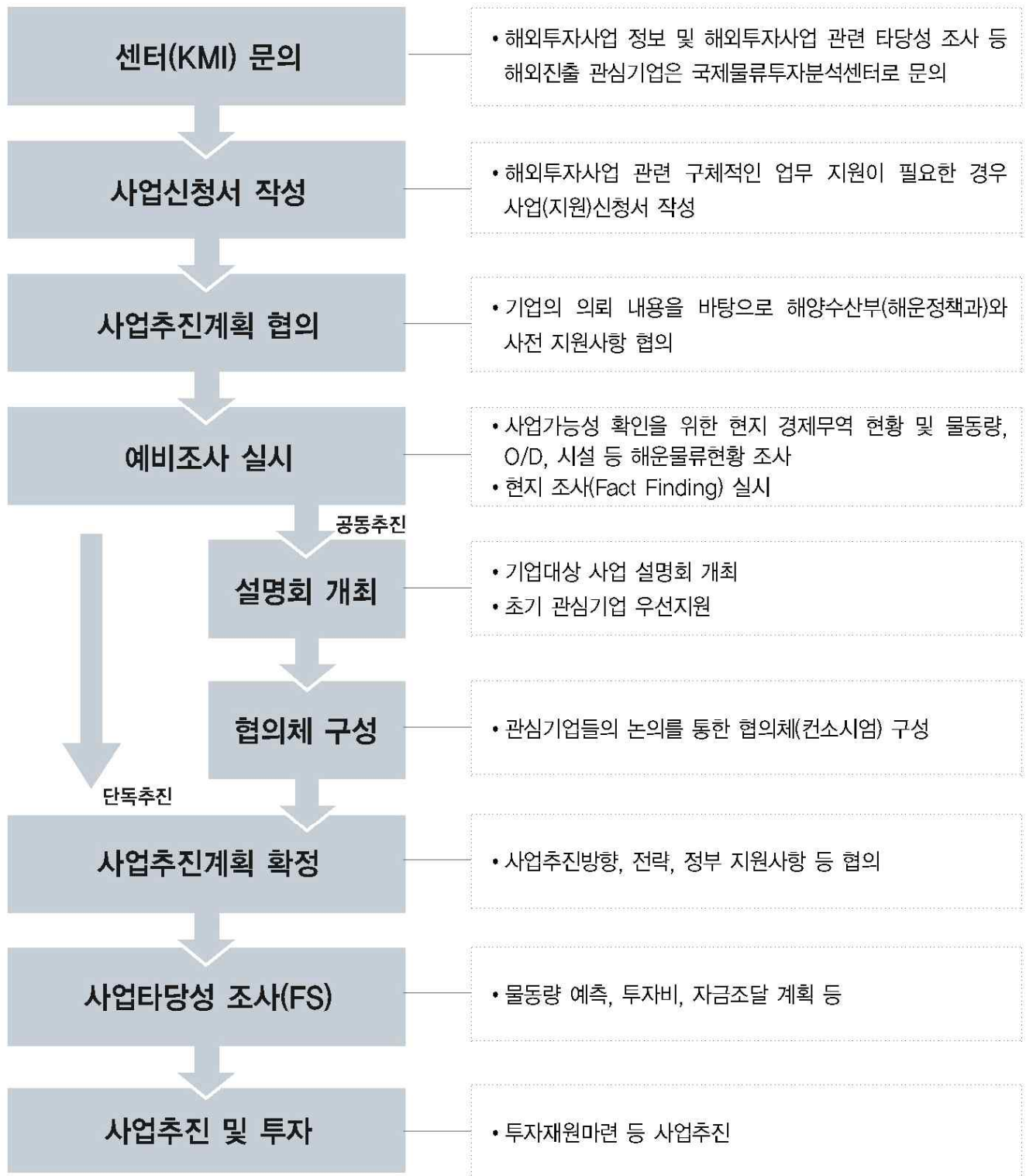
□ 신청서 평가 및 기타

- 선정기준
 - 해당 사업의 실현 가능성 · 시급성 · 난이도, 정책적 중요도,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 ·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취지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 · 지원
- 선정결과 발표 : 신청서 접수 후 2~3주 이내 개별 통지
- 유의사항 :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등은 사업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- 기타 사항은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(김은우 051-797-4772 / 손보라 051-797-4781)로 문의
- ※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

□ 사업 추진절차



[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]



* 기초타당성 조사(실비 부담), 정부간 협상,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